

# “서해안철도, 교통 접근성 개선·균형발전에 필수”

## 영광군 등 5개 시·군, 철도 건설 공동 대응 협약 체결 국가철도정책 반영 협력...정부·국회 대상 정책 건의

영광군과 함평군, 부안군, 군산시, 고창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5개 시·군은 최근 부안군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광부군수, 함평부군수, 부안군수, 고창군수, 군산부시장 등 5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해안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향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11일 영광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실무협의회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확인하고 국가 철도 정책 반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정책 당위성과 국가 철도 정책 대응 방안, 사업 추진을 위한 5개 시·군 공동 예산 편성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 5개 시·군 대표들은 서해안 철도 건설이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중앙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이후에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공동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5개 시·군 실무협의회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국회 대상 정책 건의와 공동 방문 활동, 경제성 분석(B/C)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 및 논리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5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철도 정책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서해안 철도 건설은 서해안권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5개 시·군이 협력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영광군과 함평군, 부안군, 군산시, 고창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 관계자들은 최근 부안군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영광군

## 나주, 영산강 꽃단지·강 풍경 등 관광 콘텐츠 확충 ‘박차’

### 남도풍경연구소와 공동 촬영 명소 확인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영산강 꽃단지 경관을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 발굴에 나서며 관광 콘텐츠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남도풍경연구소와 함께 영산강 들섬과 동성 일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꽃단지 개화 시기에 대비한 촬영 명소 위치를 확인했다.



나주시와 남도풍경연구소가 지난 10일 영산강 들섬과 동성 일원에서 사진 촬영 명소 위치를 확인했다. 사진제공=나주시

이번 현장 점검은 꽃이 개화하기 전 촬영 구도와 경관 활용 가능성을 미리 살펴 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진행됐다.

시는 남도풍경연구소와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꽃단지와 영산강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중심으로 촬영 적합 장소를 확인했다.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 구도와 이동 동선, 주변 경관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관광 콘텐츠 활용 가능성도 논의했다.

동성에서는 4월 노란 유채꽃이 영산강 강변 풍경과 어우러져 봄철 대표 촬영 명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들섬에서는 5월 붉은색과 분홍색, 노란색이 어우러진 꽃양귀비 장관을 이루고 6월에는 분홍빛과 보라빛 색감을 지닌 끈끈이대나물이 피어 계절마다 색다른 꽃 경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영산강 꽃단지 경관을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 풍경 속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관광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남도풍경연구소와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산강 권역 주요 촬영지 환경 정비와 사진 콘텐츠 발굴, 관광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산강의 꽃과 강 풍경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여행의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환경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희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순천, 아동친화도시 기반 강화 ‘박차’

### 유니세프 상위단계 재인증 목표

순천시는 내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17개 부서장을 단원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아동 권리 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선별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확정했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는 총 490억원을 투입해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대 분야 43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24시 안심 어린이집, 순천형 영아안심방, 달빛어린이방, 순천만잡월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 확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

## 광양,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숲 조성

### 생태축 복원사업 연계 기대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 합강 하구와 진월면 선소리 섬진강 하구 일원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염생식물 파종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15일 광양시, 취아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적 의무 이행에 넘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완도’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번 계획을 확정했으며, 내일 있게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부서별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원도=김혜국 기자 krk1831@gwangnam.co.kr

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파종에 앞서 대상지 주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오션’ 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염생식물 파종 작업을 진행했다.

파종은 광양읍 합강 하구와 진월면 선소리 섬진강 하구 등 총 약 3만3000㎡ 부지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해초 50kg과 칠면초 50kg 등 총 100kg의 씨앗을 뿌리며 블루카본 연안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대규모 파종이 이뤄진 광양읍 합강 하구 일원은 광양시가 추진 중인 ‘광양읍 합강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다. 이 사업은 멸종위기종 등 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 6월까지 약 19만 6900㎡ 규모의 이 일대를 생물서식처와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천 기자 kkkjin@gwangnam.co.kr

## 담양,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상해·사망·입원 등 15종 보장

담양군이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027년 3월 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담양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이다. 다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 입대 시 자동 가입되고, 전역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 복무 중 상해·질병·사망·입원·수술 등 사고나 질병 발생 시 15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청년 상해 단체보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담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 ‘무재해 완도’ 실현...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위험 요인 발굴·개선 지도 등 근로자 생명·안전 최우선

완도군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소속 협업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군은 청사 경비, 시설 관리, 도로 보수, 환경 미화 등 공공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338명의 근로자를 핵심 보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

임하고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팀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자와 63명의 관리 감독자가 현장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군 소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사업장별 유해 위험 요인 발굴·개선 지도, 정기적인 안전 보건 점검·현장 컨설팅, 근로자 대상 안전 보건 교육 확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안전 보건 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사

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적 의무 이행에 넘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완도’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번 계획을 확정했으며, 내일 있게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부서별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원도=김혜국 기자 krk1831@gwangnam.co.kr

## 곡성미래교육재단, 창의융합교육 추진

### 초중고 연계...인공지능·로봇 코딩 맞춤형 교육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곡성형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기반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창의융합교육’을 운영하며 지역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창의융합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전 학교급으로 확대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

했다. 주요 프로그램인 ‘로봇창의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3차시)과 5-6학년(10차시)을 대상으로 로봇 코딩과 AI를 결합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는 곡성·석곡·옥곡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블록 코딩 및 AI 리더십 교육’을 총 17차시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코딩 자격증 취득 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6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옥곡고등학교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빅데이터’ 교육으로 운영되며, 기초 개념부터 활용 사례까지 다루어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AI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 장성, 독서동아리 운영활동비 지원

### 최대 80만원...19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군립도서관에 등록된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활동비 신청을 19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장성군립도서관 성인 회원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독서 동아리이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이는 동아리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장성군민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교사, 사서, 기타 독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동아리 대표에게 최대 80만원의 운영활동비가 지원된다. 도서관 시설도 독서모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정기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면서 행사,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이항범 기자 hb6699@